

창사 64주년에 부쳐

호남의 대표 정론지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언론을 선도해 온 광주일보가 오늘 창사 64주년을 맞았다. 광주일보는 지난 1952년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사시(社是)를 주창하며 호남 대표 언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견강부약(牽強扶弱)'이라는 언론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로서 지역민과 동고동락하겠다고 다짐한 지 어느덧 64년이 흘렀다.

광주일보의 64년은 대한민국과 호남의 역사 그 자체다. 6·25 한국전쟁의 수난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 사회의 대격변기를 거치며 호남 대표 언론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 왔다. 이 모든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린다.

광주일보가 창사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이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선 지난 4·13 총선 결과로 호남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광주·전남·북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정당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국적인 성원을 받은 국민의당은 힘있는 제 3당으로 우뚝 섰다. 이처럼 지역민들이 역량을 발휘해 우리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꿈으로써 호남정치 복원과 함께 지역의 환골탈태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외와 명분을 으뜸으로 여기는 호남정신은 지난 1998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국민의정부 출범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남북화해 협력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정치적 소수로 전락하는 바람에 호남은 또다시 소외와 홀대의 명예를 돌려볼 수밖에 없었다. 인사와 예산 등 정부 배려에서 항상 뒷전이었던 호남은 침체를 거듭했다. 지역 출신 정부 부처 공직자들은 한직을 맴돌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전환점에 접어들었다. 호남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강력한 캐스팅보터로 나서게 돼 지역 소외 해소는 물론 국

가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2017년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민족 화해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됐다.

광주일보 역시 우리 정치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다시는 호남이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 동반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낼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언론의 기본 임무인 감시자 기능 수행은 물론

문화도시로서 명성을 국제사회에 떨치는 노력도 중요하다.

'섬'과 '숲'의 보고이자 '생명 창고'인 전남의 잠재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생태 환경과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은 나주의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빛가람시) 시너지 효과는 생

없는 진보·보수, 영남-호남, 청년-노년의 갈등을 반복한다면 나라는 정체되고 지역 불균형은 더욱 커져 결국 모두 패배자가 될 것이다.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대화하고 양보하며, 진취적인 자세를 견지해야만 지역과 국가가 긍정적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머리에도 새겨야 한다.

이제 광주일보는 지역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하되 균형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의 이익 추구에 앞장설 것이다. 또 실천 가능하고 실제 시민생활에 유익한 대안을 찾는 실용 정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다.

지역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상황에서 창사 64주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올바른 여론 형성과 현안 해결 등 공익(公器)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한다. 호남 부흥과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광주일보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언론의 사명을 다하되 지역민과 울고 웃으며 호남을 대변하는 대표 신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도 드린다. 그동안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호남이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대승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에도 주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구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비록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에 비해 열악한 여건이더라도 비교 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역량을 높임으로써 격차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한다면 생산도시로서의 면모가 한 층 강화될 것이다. 지난해 정식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을 분궤도에 올려

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등 초일류 글로벌 이전 공기업과 지역이 손을 맞잡고 신산업 육성에 매진한다면 전통적인 농어업에서 벗어나 산업 고도화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광주일보는 이 모든 노력이 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은 '실용'의 시대다. 과거처럼 지역과 세대, 정파의 이익에만 매달려서는 더 이상 발전을 불러 올 수 없다. 부질

은편칼럼

장애인지 예산과 의회의 역할



서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 예산은 4조원이 넘고 그 중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1371억원 정도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시 장애인 예산은 1371억원이 전부이고 오직 장애인복지과에만 존재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예를 들어 2016년 공원녹지와 사업 중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도시공원 내 보도 및 화장실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무장애인증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다. 광주시 예산으로만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2017년 말까지 20억원이 들어갈 계획이다.

비슷한 사업으로 북구 일곡 제1·2·3공린공원에 4억6000만원을 들여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 4곳을 설치하는 일이 있다. 이들 모두 장애인을 위한 예산 집행이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신호등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나

장애인보호구역 설치에 관한 일들 또한 장애인복지과가 아닌 교통건설국의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우리 시를 비롯해 전국 어떤 지자체에서도 흩어져 있는 장애인 예산에 대해 어느 실과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는 정확한 통계를 내고 있지 않다. 광주시가 장애인구비율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는 3.3% 예산이라는 오명을 씻는데 도움이 될 법한데도 장애인 관련 예산 통계를 내지 않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이나 행정자치부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없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집행부의 개념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인지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이해도와 적극성은 취지에 미치지 못 하는 실정이나, 제도시행이 아직 몇 년 되지 않은 점과 제도 실·과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2014년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실적평가에서 우리 시가 광역자치단체 1위를 차지하는 등의 발전 가능성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지예산제도는 낯설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장애인영향 분석 등의 방법 또한 알려지지 않았기에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관련 예산 통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현재 핀란드와 아일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에 성애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반영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책사업별로 장애인·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장애인평등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와 규칙 등을 분석하는 장애인영향 분석을 통해 장애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국내 움직임으로는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장애인희망서를 종합계획'을 통해 최초로 제도 도입을 천명한 바가 있다. 2014년도에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척추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전국장애인지예산제도와 연대를 출범시켰다. 또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전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 장애인단체도 상호연대를 약속하는 등 느리지만 꾸준히 장애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남아야 하는 산도 많다.

특히 장애인지 예산이 예산의 대폭적 확대가 아니라 형평성 있는 재분배를 의미한다는 기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체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인본디자인 사업은 문턱제거, 출입구 및 경사로 등 접근로 개선, 휠체어 접근 가능 화장실 개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 없는 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업 시작 단계에서 장애인영향 평가를 하면 완공 이후 편의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예산도 변화 발전하고 있다. 앞서 말한 성인지 예산이 그렇고 2016년부터 개정된 재정지원법에 따라 새롭게 작성하는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문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예산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 흐름 속에 장애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위치해 설 수 있는지 그리고 광주시 예산에 얼마만큼의 효율을 발휘하는 지는 의회에서 그 출발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광주시의회가 그동안의 성과와 노력들을 보면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만큼 기대도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無 等 鼓

'N' 5'. 디자이너 코코 사넬이 1921년 향수를 내놓으면서 붙인 이름이다. '사넬 넘버 5'라는 의미로 향수 역사상 최초로 번호가 이름이 된 사례다.

사넬은 조항사에게 향수 제작을 의뢰한 뒤 1~5, 20~24번 숫자가 붙은 샘플을 받아 마음에 드는 5번 샘플을 제품 이름으로 정했다. 사넬 넘버 5는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잘 때 뿌린다는 말로 유명세를 탔는데 지금까지도 연인들의 선물 1호로 각광을 받고 있다.

명품 중에는 숫자가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

명품 숫자

에는 4810이란 숫자가 새겨진 제품이 있다. 몽블랑 만년필의 대표 제품인 '마이스터 스타'의 팬축을 보면 4810이란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유럽의 최고봉인 몽블랑산의 높이를 뜻한다.

1924년 이 만년필이 출시된 뒤 5년 후부터 새겨지기 시작해 지금은 지갑 등 다른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다. 4810은 몽블랑 로고인 육각형의 하얀 별(몽블랑 스타·눈 덮인 몽블랑 정상)과 함께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제품을 상징한다.

'1865'는 칠레산 와인 중에 단일 브

랜드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18세부터 65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18홀을 65타에 치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해서 골퍼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한 라이온(18홀)에 65타는 기준(72타)보다 7타를 치는 것으로 프로 골퍼들에게도 쉽지 않은 기록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 부여와는 달리 '1865'는 제조회사인 산 페드로 와이너리가 설립된 연도다.

새겨진 '1837'은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설립 연도다. 상공회의소 설립으로 싱가포르 동서양 차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을 기념한 것이다.

광주 송정역 매일시장이 이름을 '1913 송정역 시장'으로 바꾸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났다. 1913년 문을 연 103년 전통의 재래시장이지만 청년들이 넘치는 시장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1952년 오늘날은 광주일보의 정신인 옛 전남일보가 호남 언론의 새 역사를 연 날이다. 지역민들에게 '1913'과 '1952'가 명품 브랜드 숫자로 각인되길 희망한다.

/정필수 사회부장 bungy@

성공은 포기 직전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멕시코의 험준한 오지에 사는 타라우마라 부족의 무기는 활이나 창이 아니라 사슴이 쓰러질 때까지 뒤쫓는 집요함, 즉 끈질김이라 한다. 사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냥꾼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지독한 존재다. '이제 포기했겠지' 싶으면 어느새 따라오고, '이 정도면 단념했겠지' 싶는데 계속 따라오고. 달리고 또 달려도 추격해 오니 어찌 지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랜드캐니언 부족의 반 숲 반 초원에 사는 오소리도 타라우마라 부족만큼이나 지독한 사냥꾼이다. 늑대들은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엘크 사슴인 무수들이 포기할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잡고, 오소리들 역시 자기들보다 훨씬 큰 노루를 쫓아간다.

특히 오소리들은 노루가 다니는 길목에서 몇 시간씩 매복해 있다가 사냥감이 나타나면 지저 쓰러질 때까지 쫓는다. 도중에 다른 노루가 눈앞을 스쳐가도 한눈팔지 않는다. 한눈을 파는 순간 둘 다 놓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래 점찍었던 놈을 끝까지

쫓는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쫓는 집중력과 끝까지 쫓는 지독함으로 사냥에 성공하는 것이다. 쫓고 쫓기는 승부에서는 먼저 포기한 쪽이 진다.

천재를 연구한 칙센트 미하이는, 천재들은 몇 주 동안 한 문제에 집중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서 천재가 된 게 아니라, 끈질기게 파고들어 답을 찾아내고야 마는 집요함이 천재를 만든다는 것이다.

자연현상 또한 마찬가지다. 물은 섭씨 100도가 되어야 끓는다. 99도까지는 아무리 열을 가해도 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물이다. 99도에서 멈추느냐, 100도를 넘기느냐, 그 1도 차이가 성패를 결정한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이 1도를 생각하자. 통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포기 직전 그 순간이 한계를 넘는 순간이다. 포기는 성공 한 보 직전에 온다. 거의 다 왔을지도 모른다. 선블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김광태·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기 고

광주역 재생은 '광주 부활의 마중물'



안용훈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광주역은 1930년 12월 30일 남조선 철도주식회사가 광주~여수 간 철도영업 개시를 시작한 데 이어, 1936년 3월 1일 국철(國鐵)로 이관되고 1969년 7월 25일 현 역사가 준공되는 등 86년여의 오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상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활황기를 누렸던 광주역 일원은 신(新)시가지 개발과 광주시청, 전남도청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으로 쇠퇴가 진행됐다. 숙박업소 등은 이용자가 감소하여 요양병원 등으로 업종을 변경했으며, 광주역 주변인 북구 중흥동 일원은 광주에서 공·폐가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전락했다. 이 지역은 특히, KTX의 운행이 중단되면서부터

도심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현격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광주역 북측으로 주거지와 전남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남측으로는 대규모 상업·업무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광주역 광장 주변의 도로망이 방사형 교차 구조로 구축되어 있고, 광주역으로 인해 남북 교통망이 단절되어 있어 교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남북 시설간 연계성이 불편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한 지역적·지리적 상황과 KTX 운행중단,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쇠퇴가 심각해지고 있어 광주역 주변 활성화가 대단히 시급하다.

광주시는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공모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광주역주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수준 높고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북구청에서도 6000만원을 추가하여 광주역주변 활성화와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광주역 주변에 분포된 공·폐가 활용

방안을 강구해 있으며 특히 호남지역 최대의 건축자재 집산지인 '건축자재의 거리'와 연계, 집수리학교를 운영하는 방안과 자동차 관련 소규모 업체가 밀집된 '자동차의 거리'를 젊은 층을 겨냥한 '자동차 튜닝산업' 등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예전의 도시정비(재개발 등) 사업은 전면철거 등 획일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세입자들과 경제력이 약한 원주민들이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곤 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마을단위 또는 골목단위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주민 생각들을 사업으로 연결해 추진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광주역 주변지역 주민과 시·

구의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의 광주시민 30여명의 '도시재생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최선의 노력중이다.

광주역 주변, 즉 동구 계림동 광주시청이 상무대 이전으로 서구 치평동으로 청사를 옮기고, 동구 광산동·금남로 일원에 있던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한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주역 KTX 운행까지 중단되면서 광주역은 황량한 도심공동화의 표본이 된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전에 펄프로 물을 풀어내어 식수로 사용하던 때에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펄프로 붓고 펄프질을 하는데 이물을 '마중물'이라 하여 깊은 샘에서 펄프로 물을 퍼올리려 한 바가지쯤의 마중물이 필요하듯 골목마다 이야기와 정이 흐르는 도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공적인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을 위한 터춤투개입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마중물로 통할 광주역 주변 활성화에 힘을 보탤 필요가 절실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